

# 바그네리안 김원철의 음악 이야기

About 바그너 글쇠나라 바깥 고리 Facebook

2016년 4월 16일 토요일

## 2016 통영국제음악제 & ISCM 세계현대음악제, 막전막후

『한산신문』에 연재중인 칼럼입니다.



▲ 2016 통영국제음악제 공식 공연 중 '아시아 작곡가 쇼케이스'

"그러니까 '나팔'이 달린 메가폰이어야 해요. 문제는 요즘 나오는 제품이 마이크와 스피커가 분리된 형태뿐이거든요. 구형 메가폰을 도대체 어디서 구해야 할지..."

2016 통영국제음악제 공식 공연 중 '아시아 작곡가 쇼케이스'를 담당할 동료들이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우쿠 아스로글루'라는 터키 작곡가가 '나팔' 달린 확성기를 연주에 사용하도록 악보에 지시해 놓았거든요.

닉 로스(Nick Roth)라는 아일랜드 작곡가는 '나무를 심어라'를 악보에 지시어로 써 놓았습니다. 1미터에서 1.5미터 정도 크기의 묘목을 물에 잘 담갔다가 공연 중 지름 40cm 이상 되는 물이끼가 있는 화분에 심고, 공연 직후 묘목을 땅에 심으라고요. 마른 잎사귀와 나뭇잎이 달린 나뭇가지를 악기처럼 쓰도록 한 일은 이쯤 되면 그다지 놀랍지도 않아요.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은 프랑스 작곡가 프레데리크 베리에르였습니다. 2e2m 앙상블 공연 때 연주된 《황궁의 왈츠, 1855년경...》이라는 작품이 문제였는데, 작곡가가 리허설 때마다 요구사항을 바꾼다더니 결국 이번 공연을 위해 악기 편성 등을 완전히 고쳤더니요. 개정판 한국초연이라고 발표되었지만 사실상 세계 초연이었던 겁니다. 다른 공연 리허설에 쓰려고 시민문화회관에 뒀던 악기를 이 공연 직전에 부랴부랴 음악당으로 가져와야 했던 일도 있었지요.

그런가 하면 항공 수하물 사고가 올해에도 있었습니다. 카잘스 콰르텟 단원 가운데 바이올리니스트 아벨 토마스의 가방이 파리 샤를 드 골 공항에서 안 왔다고요. 3월 28일 공연 전까지 도착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여서 연주에 필요한 구두와 의상을 빌려야 했는데, 서양 남자라 그런지 덩치가 감당이 안 될 만큼 크더군요. 다행히 플로리안 리임 대표님께서 구두와 옷을 빌려주셨습니다.

### 갈래

- 뉴스 (288)
- 바그너 (100)
- 연주회 리뷰 (99)
- 음악학 (89)
- 연재 (69)
- 지식과 권력 (65)
- 작품 해설 (44)
- 음악심리학 (31)
- 오디오 (30)
- 음반 (30)
- 글쓰기 (17)

### Search this blog

Search input field with a '검색' button

### 이메일 구독하기

Email subscription input field with a '등록' button

### RSS 구독하기

- 본문
- 댓글

조금 딴 얘기지만, 카잘스 콰르텟 공연에 오셨던 분들은 바이올리니스트 아벨 토마스 와 첼리스트 아르나우 토마스가 태블릿 컴퓨터를 악보로 쓰던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악보를 넘길 때는 블루투스(Bluetooth) 페달을 썼지요. 악보 앱이 뭔가 있어서 물어봤더니, 역시나 음악가들 사이에서 유명한 'forScore'더군요. 저도 참 좋아하는 앱입니다.

올해 통영국제음악제는 ISCM 세계현대음악제와 나란히 열렸던 만큼 챙겨야 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연이 열릴 동안 정작 저는 다른 일로 바쁠 때가 잦아서 아쉽네요. '졸아도 공연장 안에서 졸 테야'를 외치며 밤늦은 시간에 열렸던 홍콩 뉴 뮤직 앙상블 공연 마지막 곡을 들었던 일, 재즈 가수 스테이시 켄트 공연 때 구석 자리에 앉아서 정신 없이 졸았던 일, 제가 맡은 공연을 다 끝낸 뒤 피곤한 몸이지만 마음만은 편하게 폐막공연을 들었던 일 등이 그래도 기억에 남았습니다.

「2016 ISCM 세계현대음악제, 그리고 주목할 작품들」이라는 글에서 제가 소개했던 곡들을 정작 실연으로 들은 것이 시마쓰 다케히토 곡뿐이었던 일은 특별히 아쉽습니다. 무엇보다 리하르트 레인보스(Richard Rijnvos)의 'Fuoco e fumo'(불과 연기)를 콘서트홀 로비를 지나치다 얼핏 듣고는 얼마나 약이 오르던지요! 그런데 제가 주목할 작품으로 소개했던 신예준 작곡가가 ISCM 선정 젊은 작곡가 상 (Young Composer Award)을 받게 되어 한편으로는 기쁩니다.

저는 현대음악 애호가가는 아니지만, 적어도 열린 마음으로 현대음악을 들어보려는 편입니다. 음악제 직후인 지난 5일에는 서울시향의 현대음악 공연에 갔다 오기도 했지요. 그리고 이번 음악제를 계기로 현대음악이 조금 더 좋아진 듯해요. 앗,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현대음악을 듣는 것만요. 현대음악 공연 기획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2e2m앙상블을 공항으로 떠나보낸 뒤에 저는 업무용 메신저에 이렇게 썼습니다. "프랑스 변덕쟁이들 다 떠났다아아~~!"



Posted by WonCheol Kim at 오후 7:56:00 댓글 0개  
Labels: 연재, 통영국제음악당, 통영국제음악재단, 통영국제음악제, 한산신문, TIMF, Tongyeong Concert Hall

댓글 0건 바그네리안 김원철의 음악 이야기 로그인

추천 공유 오래된순

토론 시작

1등으로 댓글 달기

바그네리안 김원철의 음악 이야기의 다른 댓글.

현대음악의 성지, 다름슈타트 여름 현대 음악 강좌에 가다 ①

댓글 6건 · 4년 전 ·

김원철 — 2탄 기대해 주세요. ^^

페이스북 때문에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댓글 8건 · 5년 전 ·

김원철 — 얼 ㅋㅋㅋ 대마법사 후보 이름으로 무적의 솔로 부대 원기욱 보냅니다. 소원 성취하십시오! ㅎㅎㅎ

트위터 백업 (2012. 1. 24 ~ 2. 4)

댓글 3건 · 5년 전 ·

Star — 와우! 흑시나...했는데 정녕 꼼꼼하신거였군요!! :) 해외의 여러 이슈들, 소식들을 너무 즐겨 참고하고있습니다. ...

바그네리안 김원철의 음악 이야기

댓글 2건 · 4년 전 ·

김원철 — 품도 잡죠. ^^;

최근 게시물

홈

이전 게시물

### 글 찾기

검색

### 글 갈래

뉴스 (288) 바그너 (100) 연주회 리뷰 (99) 음악학 (89) 연재 (69) 지식과 권력 (65) 작품 해설 (44) 음악심리학 (31) 오디오 (30) 음반 (30) 글쓰기 (17)

### 뜨는 글

2016 올해의 공연

2016 클래식 음악 주요 뉴스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지원금 중단 위기, 피아노 페달 고장 돌발 사태에 임기응변 영상 화제, 숙명여대 작곡과 윤 전 교수 폭언 사태 학생측 승소로 사건 종결 등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K. 304, 윤이상 바이올린 소나타,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2번, 프랑크 바이올린 소나타

'구름'(cloud) 위의 음악, 그리고 공연 예술의 미래

작품 설명: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 서곡,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1번,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5번

노트북 어댑터 호환 문제

대한음악사 명동점 폐업, 아마존 비디오 한국 서비스 개시, 말러 교향곡 2번 자필 악보 소더비 경매 등

지휘자 정명훈 서울시향 사임하겠다, 지휘자 리카르도 샤이 루체른 페스티벌 음악감독 되고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사임 등

2017 통영국제음악제, 나에게 맞는 공연은?

### 최신 글

2016 올해의 공연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지원금 중단 위기, 피아노 페달 고장 돌발 사태에 임기응변 영상 화제, 숙명여대 작곡과 윤 전 교수 폭언 사태 학생측 승소로 사건 종결 등

2016 클래식 음악 주요 뉴스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K. 304, 윤이상 바이올린 소나타,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2번, 프랑크 바이올린 소나타

대한음악사 명동점 폐업, 아마존 비디오 한국 서비스 개시, 말러 교향곡 2번 자필 악보 소더비 경매 등

### 트위터

#### Tweets by @dahlhaus

김원철 @dahlhaus  
2016 올해의 공연. 『한산신문』에 연재 중인 칼럼입니다.

[wagnerianwk.blogspot.kr/2017/01/2016.h...](http://wagnerianwk.blogspot.kr/2017/01/2016.h...)

06 Jan

김원철 @dahlhaus

Embed

View on Twitter

### 최근 댓글



김원철

댓글 감사합니다.

<http://wagnerianwk.blogspot.com/2009/03/진보신당의-거짓-연대.html> · 6 months ago



로게의화염

질 떨어지는 싸구려 촌평

<http://wagnerianwk.blogspot.com/2009/03/진보신당의-거짓-연대.html> · 6 months ago



김원철

억 ㅋㅋㅋ 대마법사 후보 이름으로 무적의 솔로 부대 원기옥 보냅니다. 소원 성취하십시오! ㅎㅎㅎ

바그네리안 김원철의 음악 이야기: 페이스북 때문에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 1 year ago

[본문 RSS](#) · [댓글 RSS](#) · [댓글 트위터](#)

Powered by Blogger.